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7.10~2026.07.17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미국 전력 생산에서 청정전력 비중 3개월 연속 50% 상회 (2026.07.13, Reuters) 미국의 '26년 상반기 전력 생산량은 AI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전력 생산 중 청정전력 비중은 처음으로 3개월 연속 50%를 상회. 태양광 발전량은 상반기 231TWh로 +20%YoY 이상 증가
	● EU, '30년 200GW ESS 필요성 언급 (2026.07.13, Energy-Storage.news) 22개 회원국이 참여한 3자 협약에서 EU는 '30년까지 200GW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고 제시. 재생에너지·배터리 프로젝트의 배전망 병목이 이어지며, 장주기 저장장치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
Government	● 미국 일부 주(州),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조달 요건 부과 방안 추진 (2026.07.11, AP)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미국 내 화석연료 부활 기조에도 불구하고, 뉴욕·미시간·오리건 등 일부 주는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조달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여파에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취소 (2026.07.14, Reuters) 미국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여파로 \$83B 규모 프로젝트가 지연·취소. 또한 인센티브 축소와 세액공제 요건 강화로 추가 \$695B 규모 프로젝트도 위험에 노출. 해당 여파에 청정에너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둔화 우려 확대
Corporations	● 구글, 미국 대형 태양광·ESS 프로젝트 전력 구매 계약 체결 (2026.07.14, FT) 구글은 아칸소 Steel River Energy Center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을 체결하며, 장기 청정전력 조달을 강화. 세액공제 축소 우려에도, 빅테크들의 장기 청정전력 계약이 재생에너지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는 모습
	● 화웨이, 자회사 청정에너지 사업 호조 (2026.07.14, Bloomberg) 화웨이의 청정에너지 자회사 Huawei Digital Power는 ESS·태양광 인버터·EV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11B 이상의 매출을 기록. 신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중국 에너지 전환 장비 기업의 영향력 지속
Funds	● 필리핀 SSS,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위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2026.07.13, Manila Buletin) 필리핀 연금금 SSS는 약 10만 가구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40B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중. 가입자 대상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금 자금을 활용한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사례로 평가
	● 스위스 주요 연기금, 인프라 펀드 추가 출자 (2026.07.14, Business Wire) 스위스 주요 연기금들은 Record Asset Management의 인프라 펀드에 추가 출자를 약정. 이에 해당 펀드의 총 약정액은 약 €1.23B 로 확대됨. 해당 인프라 펀드는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송전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 자산에 투자
	● 미국 CalPERS, '30년 \$100B 기후 투자 목표 순항 (2026.07.14, Net Zero Investor) 미국 연기금 CalPERS는 '30년까지 기후 투자에 \$100B를 배정하겠다는 목표 중 현재까지 약 \$60B를 집행, 목표 달성 궤도에 있다고 밝힘. CalPERS는 기후 전환 기준을 반영한 상장주식 투자 전략에 \$5.8B를 배정하고, 다른 사모 기후펀드에도 투자하는 등 탈탄소 전략을 포트폴리오 전반에 통합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